

2018년 11월 2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유럽증시, 원자재 업종 하락 주도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또한 주식시장 부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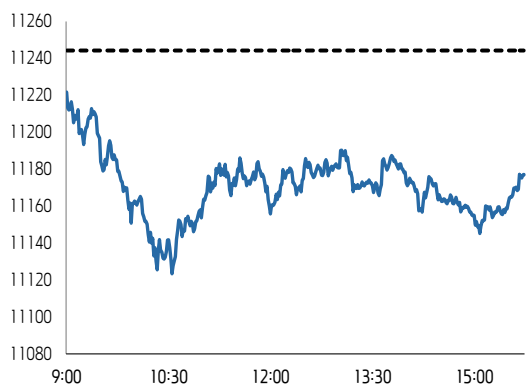
유럽 증시 하락 요인

영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둔화 및 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부진. 특히 전기 가스 공급업체인 센트리카(-9.23%)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하락하고, 멕시코 광업업체 Fresnillo(-12.07%)는 정부의 광업 규제 여파로 급락. 독일을 비롯한 여타 유럽 증시 또한 원자재주가 하락 주도. 한편, 미국 시간 외 선물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히 발목을 잡으며 0.6~0.8% 하락한 점도 부담(독일 -0.94%, 영국 -1.28%, 프랑스 -0.75%)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에 영향을 준 이슈는 ①미-중 무역분쟁 ②상품가격 하락. 먼저 무역분쟁 이슈는 지난 19 일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이 첨단기술 수출 제한을 시사하는 보고서 제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한 점이 부담. 미국 산업안전국은 14 개 기술이 국가 안보에 해당 되는지 의견 요청을 발표. 12 월 19 일 관련 의견을 청취한 이후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관련 기술이 해당 된다면 미 상무부는 관련 제품 수출 규제를 가할 수 있음. 지난 19 일 관련 보고서 발표 이후 나스닥이 당일 3% 넘게 급락하는 등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컸음. 그런데 전일 중국 상무부가 22 일 오후 “미국은 우수한 제품 수출을 늘려야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며 반발. 시장은 이와 관련 29 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보다는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

한편, 상품가격 하락도 유럽 증시 부진 요인. 국제유가가 재고 증가 및 12 월 OPEC 정례회담에서 감산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된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감. 특히 2019 년 하반기 미국의 파이프라인 병목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더 많은 미국 원유 공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 더불어 프랑스가 이란과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계속 교역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설립 논의를 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한편, 사우디가 비 석유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천연가스가 급락하고, 여타 비철금속 또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매물 출회. 이 여파로 앵글로아메리칸(-3.25%), 글렌코어(-1.82%), 아르셀로미탈(-2.37%) 등 원자재주가 하락

독일 닥스 지수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9.95	-0.32	홍콩항셱	26,019.41	+0.18
KOSDAQ	692.39	-0.48	영국	6,960.32	-1.28
DOW	휴장		독일	11,138.49	-0.94
NASDAQ	휴장		프랑스	4,938.14	-0.75
S&P 500	휴장		스페인	8,906.20	-0.61
상하이종합	2,645.43	-0.23	그리스	598.73	-0.20
일본	21,646.55	+0.65	이탈리아	18,603.04	-0.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전망

원자재 관련 업종 주목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77 계약) 여파로 0.65pt 하락한 267.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원자재 업종이 하락을 주도 했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의 신 기술 제품 수출 규제를 시사하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비판을 가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29 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상존한 가운데 중국의 비판은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1.5% 가까이 하락하는 등 상품시장 약세 또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중국 상무부가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언급한 점, “미국과 중국 정상간 전화통화 때 논의된 무역분쟁과 관련된 공통 인식을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다음 주 29 일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원자재 관련 업종이 시장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럽 소비심리 지속 둔화

11 월 유럽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2.7) 보다 둔화된 -3.9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의 산유량 증가 및 OPEC 감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더 나아가 프랑스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이란과 논의한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한편, 러시아가 여전히 감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OPEC 정례회담에서 감산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 왔다.

달러화는 파운드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메이총리와 용커 EU 집행위원장과 합의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이 제한돼 달러화의 약세 또한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금리는 미 채권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시간 외로 상승 했다. 12 월 FOMC 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모건스탠리가 “연준은 금리 추가인상에 신중한 접근을 수반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시간 외 상승은 제한 되었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주 27(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28 일(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금을 비롯한 구리와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사우디의 대규모 비 석유 광물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휴장			Dollar Index	96.484	-0.24	-0.46
브렌트유	62.60	-1.39	-6.03	EUR/USD	1.1406	+0.19	+0.69
금	휴장			USD/JPY	112.95	-0.10	-0.61
은	휴장			GBP/USD	1.2878	+0.78	+0.81
알루미늄	1,946.50	-0.36	+0.91	USD/CHF	0.9946	-0.03	-1.20
전기동	6,255.00	+0.32	+1.15	AUD/USD	0.7257	-0.08	-0.27
아연	2,582.00	+0.55	+0.23	USD/CAD	1.3184	-0.36	+0.05
옥수수	휴장			USD/BRL	3.8042	+0.18	+0.48
밀	휴장			USD/CNH	6.9256	+0.01	-0.02
대두	휴장			USD/KRW	1129.20	-0.21	0.00
커피	휴장			USD/KRW NDF 1M	1129.25	+0.16	+0.2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휴장			스페인	1.635	+0.30	+0.70
한국	2.205	-0.50	-2.50	포르투갈	1.945	-1.30	-1.90
일본	0.100	+0.50	-0.90	그리스	4.558	-7.50	0.00
독일	0.370	-0.60	+1.00	이탈리아	3.452	-1.60	-3.70